

## ‘To Feed People Happy’



차 상협  
한일사료(주) 대표이사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만 2代 경영인으로써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사료산업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일사료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2010년 한 해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봄 여름 다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며 올해 마무리와 함께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일사료 창업주(차두홍 회장)께서 60년대 후반 축협에 근무하시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청량리역 근처에서 ‘한일상사’라는 상호하에서 사료판매업을 시작하시고 그 뒤 상봉동에 본사공장터를 잡아서 한일사료를 창업 하신지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네번이나 바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간 한일사료를 사랑해주는 양축가님들 덕분에 회사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40여년 전 창업주의 창업이념이신 ‘飼料報國’의 정신에 소홀함이 없도록 임직원

들과 함께 좋은 사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의 사료회사에게 있어서 사료산업이 더 이상 고수익이 보장되어지는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이어간다는 사명감과 창업주의 ‘飼料報國’이라는 기업관을 항상 가슴에 명심하고, 이를 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시켜서 사료를 매개체로 하여 한일사료와 이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객 여러분들, 임직원과 주주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자는 ‘To Feed People Happy’를 회사의 새로운 미션(Mission)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주위 분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커다란 위안으로 삼고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년을 계속해온 사료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 IC 근처로 본사 공장을 이전한지도 27년째가

되었고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공장주변은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신설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위치한 지역은 물류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지에 위치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위치하여 많은 분들을 당사의 이웃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웃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당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료공장의 냄새에 기인한 민원은 공장책임자의 주민간 수 차례 대화를 통한 입장설명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대규모 시설투자로 냄새제거 노력을 병행하여 큰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변의 공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장의 냄새를 악취로 인식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축산업과 사료업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축산 환경문제인데 축산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지역 중심지에 몇 십년된 도축장이나 농장들이 위치하고 그에 따른 냄새가 발생함에도 지역 주민들과 마찰 없이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존경받는 향토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의 상생정신이 놀랍고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국형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의 경제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했던 경영방식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경영방식인 '지속가능 경영'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이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의 임미시온 (Immission)의 금지 조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이해해 줄 때 비로서 우리 축산업이 계속 존재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축산분뇨 처리장이나 축산분뇨 병합 처리장 이외에 신규로 대규모 시설의 신축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데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넘비현상이라 불리는 지역 이기주의로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한우, 한돈을 생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 특히, 축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정작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들은 축산 농가들과 관련 업계의 책임으로만 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국민 모두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로 한데 축산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

인 사료산업이 앞서 제기한 작은 문제들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축산 농가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료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웃에 있는 사료공장에서 냄새가 날지언정,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료를 섭취한 우리 소 돼지로부터 생산된 축산 식품을 우리 국민들이 안전·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실 때 비로서 우리 축산인들이 경영외적인 요소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힘쓰고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인기 연예인이 나와서 'I Love 한우'를 흥

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있는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축산 인프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I Love 목장' 'I Love 축산분뇨 처리장'을 함께 홍보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전국 각지에 축산 Zone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는 목장이나 축산 분뇨 처리장과 같은 시설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To Feed People Happy'

앞으로도 사료를 천직으로 알고 내 주위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